

2. 우리나라 아웃소싱 현황과 과제

- (의의) 외부기능이나 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아웃소싱은 기업 구조 조정 및 정부개혁의 유력한 수단이자, 유망 신사업이며, 고용창출 수단임
- (시장 규모와 전망) 우리 나라 아웃소싱 산업은 90년대 들어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 규모는 1996년 현재 약 20조 원에 달하며, 2001년에는 100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동향) 전반적인 경기 불황속에서도 아웃소싱 업계에는 신규 수요(Y2K 문제, ERP, 지식 경영 등)가 창출되고 있으며, 다양한 아웃소싱 전문 업체도 등장하고 있음. 정부의 아웃소싱 수요도 확대되고 있으며, 일부 대기업은 分社化 방식의 아웃소싱 전략을 적극 구사하고 있음
- (문제점과 대응 과제) 아웃소싱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공급측의 여건은 매우 취약함. 이에 따라 외국 업체의 국내 시장 잠식이 우려됨. 아웃소싱 실태 조사 및 정책 담당 부서의 구축, 아웃소싱 시장 규율의 확립,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 개발 등이 정책적인 수준에서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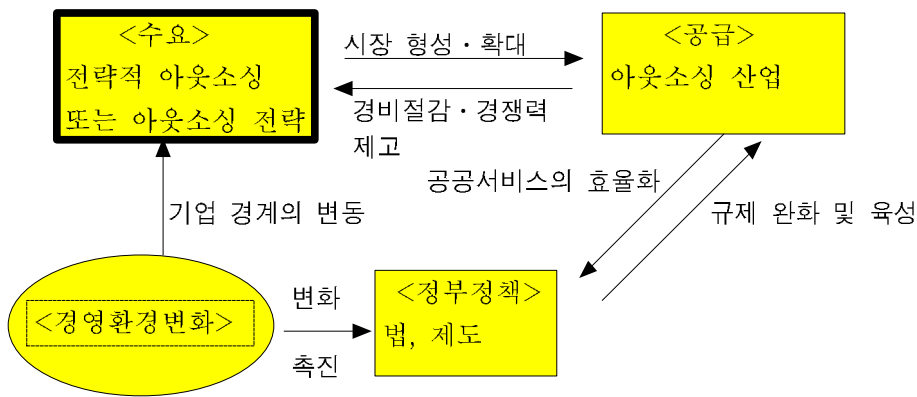
□ 의의

- 아웃소싱이란 통상 기업의 경계 밖에 있는 외부 기능이나 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서, 특히 제조 기능보다는 서비스 관련 부문의 외부 위탁이라 할 수 있음
 - 아웃소싱은 기업에게는 구조 조정의 수단이자 新사업으로서, 그리고 정부에게는 공공 부문의 개혁과 고용 창출 효과를 제공하는 수단임
- 경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아웃소싱의 수요가 증대되었음 (아웃소싱 전략 또는 전략적 아웃소싱)
 - 경기 침체, 구조 조정, 경쟁력 강화의 수단으로서 아웃소싱을 통한 경쟁력 강화의 성공 사례가 이어지고 있음
 - 또한 신규 창업을 원하는 중소기업 및 벤처 기업 등은 초기의 높은 고정 자본 투자 부담을 줄이는 수단으로서 다양한 아웃소싱 전략을 도입하고 있음
-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서의 아웃소싱 산업이 등장하고 있음
 - 아웃소싱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응한 새로운 유망 사업으로서 아웃소싱 산업이 속속 발생하면서, 신규 투자사업으로서만이 아니라 고용창출 사업의 하나로써 등장하고 있음(예: SI 분야, 인재 개발 관련, 각종 전문 대행업)

- 정부의 새로운 정책 방향

- 최근 정부의 산업정책은 그 대상을 종래의 제조업 중심에 서비스를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음. 따라서 아웃소싱 산업과 같은 서비스 산업에도 정책의 혜택이 증가하게 될 것임
- 한편, 공공 부문의 개혁 또는 구조 조정 일환으로서 민영화 확대와 외부 조달의 확대 등도 아웃소싱 산업이 주목받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음

< 아웃소싱 활용의 구조 >



□ 우리 나라 아웃소싱 시장 규모와 전망

- 아웃소싱 시장 동향

- 우리 나라 아웃소싱 산업 규모는 1996년 현재 약 20조 원에 달하며, 90년대에 들어 높은 신장세를 보였음¹⁾

- 2001년 전망

- 1990~96년간 평균 성장에 근거해서 2001년의 아웃소싱 산업 규모를 추정해 볼 때, 사업체 수는 9만여 개에 달할 것이고, 종업원수도 96년의 83만 명 수중에서 430만 명으로 확대될 것이며, 시장 규모는 1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산업 분류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다양한 서비스 부문에서도 아웃소싱 수요가 추가될 것²⁾이기 때문에 이러한 확대 추세가 실현될 가능성이 높음

1) 일본 통산성의 발표에 따르면, 1997년도 현재 廣義(각종 대행업을 포함한 아웃소싱)로는 32조 엔이며, 狹義(파견 및 컴퓨터를 구사하는 사무 관리, 마케팅의 수탁)로는 3조 엔임. 한편, 미국 아웃소싱 협회에 따르면, 1996년도 미국의 시장 규모는 약 1,000억 달러에 달하고 2001년에는 3,000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우리 나라 아웃소싱 관련 산업 규모 >

	1990	1993	1996	2001(전망)
사업체수(社, %)	24,386	35,531 (13.4)	50,575 (12.5)	92,770 (12.9)
종업원수(名, %)	192,843	311,018 (17.3)	833,721 (38.9)	4,310,542 (27.6)
매출액(조 원, %)	4.0	7.3 (22.2)	19.5 (38.8)	100.5 (30.2)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통계조사 보고서」, 1991, 1994, 1997년도.

주: 1) 아웃소싱 관련 산업의 범위로서 1990년에는 표준 산업분류 기준 841(법무, 회계 및 기타 사업 관련 서비스업) + 842(건축, 공학 및 기술검사 서비스업) + 843(조사 및 정보 관련 서비스업) + 844(기계 장비 임대 이외의 기타 사업 서비스업), 1993년도와 1996년도는 개정 표준 산업 분류 기준으로 72(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응용 관련업) + 74(기타사업 관련 서비스업: 법무 회계, 시장 조사 및 경영 상담업 + 건축엔지니어링 기타 기술 서비스업 + 광고업 + 기타 사업 관련 서비스업)으로 함.

2) ()는 연평균 증가율.

□ 아웃소싱 업계의 최근 동향

- 관련 법, 제도 변화, 기업 구조 조정 등으로 인해 아웃소싱 전문 공급 업체들이 국내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음
 - 7월 1일부터 근로자 파견업이 허용됨에 따라 종래의 단순 인력 소개소 수준에서 벗어나고 있음. 생산부문 근로자 아웃소싱 전문 업체, 통신을 활용한 인력 전문 업체 등이 대표적인 사례임. 이외에도 기업 구조 조정의 가속화에 따라 홍보나 디자인 전문 업체도 속속 등장하고 있음
- 정부 부문도 아웃소싱 수요자로서 나타나기 시작했음
 - 기획예산위원회는 지난 5월 정부 개혁 차원에서 국가 업무중 민간에 이양할 96개 업무를 선정, 해당 부처와 협의해 99년부터 민간 위탁을 추진키로 했음
 - 최근 추경예산안에 정보화 사업 명목으로 1,350억 원이 책정되었으며, 기획예산위는 99년도 전산 분야 25개 사업 중에서 아웃소싱 대상 사업을 골라서 외주를 주지 않으면 예산 책정을 하지 않을 방침을 세운 바 있음
 - 따라서 전산 부분을 비롯한 다양한 아웃소싱 시장이 내년에 정부 부문으로부터 창출될 것으로 전망됨

2) 아웃소싱 산업 범위에 추가될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는 표준산업분류상으로 809(달리 분류되지 않은 교육 기관), 900(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등임

- 대기업들도 구조 조정의 일환으로서 아웃소싱을 적극 활용하려고 하는 가운데, 대표적인 방식으로 分社化 방식이 채택되고 있음
 - 삼성 그룹에서는 전기전자 계열 그룹(삼성전자, 삼성전관, 삼성코닝, 삼성전기)을 중심으로 分社化 방식으로 아웃소싱을 활용하고 있음. 삼성 그룹사의 分社化는 올 9월까지 29 개가 완료되었으며, 향후에도 10여 개사가 추가될 예정임
 - 현대 그룹의 경우에는 현대전자의 컴퓨터 부문 分社化가 대표적인 사례임

- 불황 하에서도 아웃소싱 창출이 기대되는 분야: Y2K 문제, ERP, 지식경영
 - 경제 위기 상황에서 구제금융에 따라 전반적으로 아웃소싱의 수요 기반이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고 있음
 - 특히 주목되는 것은 2000년 연도 표기 문제(Y2K 문제) 해결을 위한 대기업과 금융 부문의 수요라 할 수 있음. 최근 한국IBM이 SK(10년간 10억 달러), 대한항공(10년간 4억 달러)과 대규모 전산 업무 아웃소싱 계약을 맺는 것이 이것의 대표적인 사례임. 특히 98년도 금융 부문의 SI 수요는 3,0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이외에도 업무 혁신을 위해서 도입이 적극화되고 있는 全社的 자원 관리시스템(ERP), 지식 경영(KM) 서비스 수요(컨설팅, 사내 지식DB 구축) 등이 이에 해당됨

□ 문제점과 정책 과제

- 문제점
 - 수요층의 취약: 국내 기업들은 아웃소싱을 단순 기능의 보완 차원에서 고려하고, 기업 경영의 전략적 차원에서 고려하지 않아 아웃소싱의 수요 확대가 미흡했음. 다만 최근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아웃소싱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음
 - 외국 업체에 의한 시장 잠식: 최근 기업 구조 조정에 따라 국내에도 아웃소싱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국내 관련 산업의 미비로 외국 업체에게 해당 산업이 잠식당하고 있는 상황임. 앞서 보았듯이 SK, 대한항공 등 대규모 전산 분야의 아웃소싱 사업이 IBM에게 넘어갔으며, 인력 파견업에서도 일본의 파소나, 미국의 맨파워 등의 진입에 따라 시장 잠식이 우려되며, 헤드헌터 등 고급 두뇌 공

급 분야에서도 상황은 비슷함

- **아웃소싱 시장의 규율 확립 문제:** 기업 내부 기능의 외부화시 가장 문제는 프로젝트의 정의 문제(발주업체와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 프로젝트의 범위나 기간, 산출물의 품질 등에 대한 범위 규정), 아웃소싱 공급 업체와 수요 업체간 신뢰 관계, 기밀 및 보안 유지 문제 등임. 그러나 국내 아웃소싱 업계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아웃소싱에 관한 양자간의 공통적인 지식 공유 및 시장 규율 문제가 명확히 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프로젝트 표준형의 규정 등 제도적 여건 마련이 필요함

- 과제

- **공급자측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제도적 여건 조성:** 다양한 전문적이고 경쟁력 있는 아웃소싱 업체들이 출현할 수 있도록 서비스 시장의 규제 완화가 요구됨. 또한 아웃소싱 거래상의 영업 비밀 남용을 방지할 법적 조치도 필요함
- **아웃소싱 관련 인프라 구축:** 현재 우리 나라에는 아웃소싱에 관한 공식적인 실태, 아웃소싱에 관한 공식적인 개념 규정, 기초 산업 통계도 없는 실정임. 미국에는 아웃소싱 협회가 있고, 일본의 경우도 지난 96년 통산성 산하에 「아웃소싱 위원회」를 설치하여 아웃소싱 현상, 효과, 발전 과제 등에 관해 연구를 하고 있으며, 민간연구소에 의뢰하여 아웃소싱에 관한 다양한 실태 조사를 해오고 있음. 우리나라도 정책 담당 부서가 필요하며, 아웃소싱에 관한 기초적인 인프라 구축을 수행해야 할 것임
- **다양한 이벤트 행사 개최:** 아웃소싱 활용측과 공급측 기업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아웃소싱 활성화에 중요함. 올해 중소기업청이 한국종합전시장에서 아웃소싱 박람회를 개최 계획을 세웠으나, 신청 기업이 적어 행사 자체가 취소된 바 있음. 일본 통산성은 올 3월부터 양자간의 원활한 만남을 위해 인터넷 공간에 서비스 사업자 850여 개사 리스트를 게재하고 있음

(류 재 현 jhryu@hri.co.kr ☎724-4040)